



공동체 소식

부활 제 5주일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사랑의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 하느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가정
-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가정

☞ 5월 기도지향 가정 : 이우석(프란치스코), 김인자(글라라) 가정 차호섭(요셉), 최선운(마리아) 가정

금주의 전례력

- 4/29(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기념일
- 5/3(금) :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사제관 및 회관 축복식

- 일시 : 4/28(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8903,8901 Haskins St. Lenexa
- ☞ 앞으로 '공동체 공간'을 '회관'이라 명명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 1구역: 5/4(토) 오후 7시, 김창만 그레고리오 닻 10006 Melrose St. Overland Park, KS 66214
- 2구역: 5/4(토) 오후 7시, 김호원 요한 닻 12721 England St. Overland Park, KS 66213
- 3구역: 5/3(금) 오후 7시 30분, 이우영 가브리엘 닻 14304 Outlook St. Overland Park, KS 66223
- 4구역: 5/4(토) 오후 7시, 차호섭 요셉 닻 331 SE. Wood Ln, Lee's Summit, MO 64063
- 5구역: 5/4(토) 오후 7시, 김정환 요한 닻 9008 N. Lewis Ave. Kansas City, MO 64157

본당 야외 미사

- 일시 : 5/5(일) 11시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 ☞ Mother's Day를 앞당겨 점심식사는 형제님들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성모의 밤

- 일시 : 5/10(금) 오후 8시
- 장소 : 본당
- 지향 : 저희 공동체를 성모님께 봉헌하며, 성모신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미주 사제 컨퍼런스

- 일시 : 5/13(월) ~ 17(금) 4박 5일
- 장소 : Howard Johnson Hotel(L.A)

기타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믿는 이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며 그분의 전구에 의탁해 봅시다.
- 이번 주일(4/28) 중심미사 후, 전례부 회의가 있습니다.
- 켈기도 모임(화요일 팀)은 5월 중 첫 회합을 갖고자 합니다.
- 캔사스 대교구 대주교님의 사목방문이 11/24(그리스도왕 대축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목방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마음을 모읍시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34	215	167/504	13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동현(프란치스코)	차호섭(요셉)
	안지영(카타리나)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야 외 미 사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네스)	김정옥(수산나) 김세라
차주	박혜정(가타리나)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조경희(요안나) 한정숙(마리아), 김말자(세실리아)
차주	야외미사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4/14	115명	471불	1,280불
4/21	97명	435불	1,190불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 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는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본받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다봅시다.

성화해설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1669, Oil on canvas)
탕자의 비유 (루카 15.11-32)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잘못을 묻지 않고 아무말 없이 그저 꼭 안아줄 뿐입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의 어깨에 얹은 손을 한쪽은 어머니의 손으로, 또 한쪽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넣음으로써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기다리던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애타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사도 14.21ㄴ-27 <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 >



저 의 하느님 임 금 님 기 리 오 리 다 영 원 토 록 당 신 이 름 기 리 오 리 다.

- 주님께서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시오이다. 주님께서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뻐 여기시나이다. ◎
- 일체 당신의 조물들이 주님 당신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당신 나라 영광을 들어말하며 당신의 능하심을 일컫게 하옵소서. ◎
- 당신의 장하신 일 사람마다 아옵고 당신 나라 찬란한 영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무궁하리이다. ◎

제 2 독서 : 묵시 21.1-5ㄴ <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 요한 13.31-33ㄴ.34-35 <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

세 마

새 계명



요한복음서가 복음서들 중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미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 안에 있는 주제들을 정리하여 명상하는 식으로 엮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들은 예수님의 최후만찬에서 비롯된 성찬을 이미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최후만찬 이야기를 새삼하기 보다는 신앙공동체들이 거행하고 있는 성찬이 지닌 의미를 명상하는 양식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최후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의 몫입니다. 이 복음서는 종이 하는 일을 몸소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인도 종과 같이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종교 집단도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구실만 있으면, 동료 인간 위에 군림하고 횡포하여 합니다. 종교 집단의 기득권자들은 하느님을 후광으로 사람들에게 흔히 횡포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빙자하여 그들 공동체 안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재물과 권력이 보이는 곳에 인간은 늘 횡재(橫財)와 횡포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교의 실세인 율사와 사제들도 걸핏하면,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죄하며 횡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횡포를 비판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2-43).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도, 횡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그를 고쳐 주고, 나병환자를 만나면,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을 만나면, 용서를 선포하여 죄책감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과시하지 않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보도록 실천하셨습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사도 10,38).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낼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고 대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웃에게 흐르도록 자기 스스로 묵묵히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사랑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몸짓에 나타나고, 인류역사 안에 살아 흐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과 교섭하여 혜택을 얻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도 아닙니다. 기도, 미사, 헌금 등은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흘러들 것을 빕니다. 우리는 미사에서 내어주고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같은 실천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렇게 기도도, 미사도, 헌금도 모두 사랑하고 섬기시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합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

마중물

하느님께서 “NO!”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나의 오만을 없애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NO” 라고 말씀하시며, 오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다시 하느님께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NO” 라고 말씀하시며, 인내는 고난의 산물이라고, 또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다시 하느님께 행복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은 역시 “NO”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에게 은총을 줄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셨다. 나는 다시 하느님께 내 영혼을 성숙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NO” 라고 말씀하시며, 성장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네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 줄 뿐이라고 하셨다.

나는 다시 하느님께 내 고통을 덜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NO” 라고 말씀하시며, 고통으로 인하여 네가 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쭙어보았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YES, YES!” 하시며, 그래서 당신 외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다시 하느님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아! 드디어, 네가 드디어 바로 그 생각을 하였구나!” 하셨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31. 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우리는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카톨릭교회 교리서, 456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